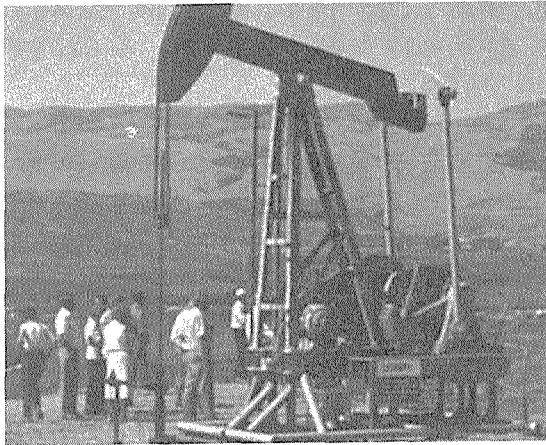


美国 원유초과이윤세 폐지

美国정부는 최근 석유생산초과이윤세(WPT : Windfall Profit Tax)를 폐지했다. 석유생산초과이윤세는 최근 레이건대통령이 이 세제의 폐지조항이 포함된 美國중합무역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마침내 폐지되었다.



美國의 석유생산초과이윤세의 폐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침체된 美國의 석유탐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석유생산초과이윤세는 지난 1979년 제2차 석유위기 이후인 1980년에 카터행정부가 제안하여 입법화시킨 것으로서 제안당시에만 하더라도 대규모 합성연료개발과 에너지절약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세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美의회는 WPT법안을 통과시키면서 WPT의 용도를 지정하는데에는 반대했었다.

당초 WPT징수액은 오는 91년 폐지될때까지 총 2천 2백70억달러로 예상했으나, 제정후 8년이 지난 현재의

총징수액은 겨우 7백70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는 油價 하락에 기인된 것으로서 油價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82년에 1백40억달러의 실적을 보인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최근 2년간의 징수실적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이와같이 높은 징수목표액은 油價가 배럴당 5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설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적정이윤이 보장된 油價수준을 상회하는 원유판매가격에 대해 30~70%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2년동안 WPT收入은 유가하락과 면세점의 계속적인 상향조정으로 인해 全無한 상태이다. 이와같은 징수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석유업계의 대정부보고에 필요한 행정업무비용은 연간 1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美석유업계는 WPT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제가 美國석유회사들의 국내석유탐사욕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 그 철폐를 계속 주장해 왔다. 美國석유업계는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철폐를 요구해 왔으나, 그때마다 좌절되었다. 레이건대통령도 8년전 선거공약으로 WPT의 폐지를 내세웠으나, 그동안 재정적자 때문에 폐지를 보류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원유가격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또 다시 WPT의 폐기론이 강력히 제기되어 결국 레이건대통령은 이 세제를 폐지시킨 것이다.

WPT의 폐지로 앞으로 美國내 에너지안전보장문제가 당장 해결되고 또 석유탐사활동이 촉진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WPT의 폐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석유탐사와 개발에 대한 하나의 제약요인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석유개발 활성화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